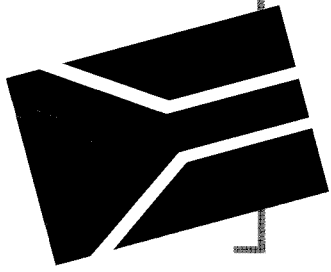


연·중·기·획
국가별 육계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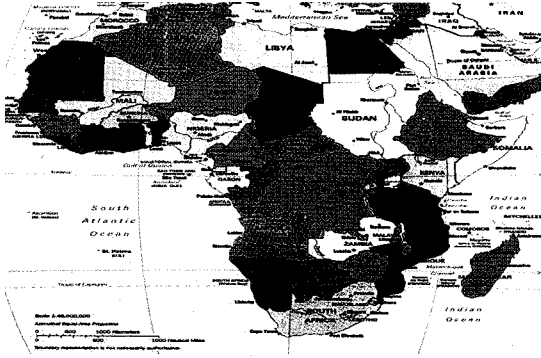
제10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계산업(I)



박희권 상무
(주)하림

‘아프리카’ 하면 우리에게겐 왠지 멀고 낯설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 마저도 구입이 쉽지 않은 대륙으로 먼저 생각하게 된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해도 초원 위를 달리는 사자와 코끼리, 사슴 등이 뛰노는 셀렝게티 평원을 떠올리거나 전갈이 뛰어 노는 사하라의 모래 사막을 생각해 도무지 경제와 축산과는 긍정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사실 아프리카 53개 국가 중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만큼은 비교적 부유한 나라라고



〈그림 1〉 남아프리카공화국

할 수 있다. 아프리카 52개국의 GDP 합보다 남아공 한 국가의 GDP 합이 더 많다는 통계가 이를 대변한다.

실제 아프리카 대륙의 땅 넓이는 28,000천 m^2 로 한반도의 약 128배이고, 인구는 8.4억 명으로 한반도의 175배에 해당한다.

특히 남부 아프리카 - 남아공, 앙골라, 잠비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레소토, 스와질랜드 - 는 광물질(크롬, 구리,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이 풍부하여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세계 여성들의 미와 장신구를 책임지고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광물질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광산 채굴권의 이권 때문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20세기까지 그들만의 역사를 갖지 못하고, 약탈과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이들 아프리카인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닭고기를 연간 20kg만 섭취한다면 연간 1,600만톤의 닭고기가 소요되어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연간 닭고기 생산량의 40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의 숙제인 수출 시장 개척의 최대 시장이라고 생각된다.

브라질과 경쟁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향후 아프리카 대륙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닭고기 수출 시장으로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세상에 드러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희망봉이다. 좌측 대서양과 우측 인도양이 만나 태풍도, 허리케인도 없는 조용한 바다를 만들어서 콜럼부스가 달걀을 깨뜨리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통과한 희망봉은 태풍도 없는 아주 평안한 항구이다. 힘 없는 선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희망봉은 아직도 맑은 물과 도도히 전진하는 선박과 함께 오늘도 내일처럼 영원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2010년 월드컵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축구의 영원한 숙제인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도 허정무호가 어려운 예선을 통과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본선에 올랐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2002년 서울 월드컵에서 처럼 이번 월드컵에서도 4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림 2〉 소맥



〈그림 3〉 포도밭

남아공 인구는 약 4,500만명으로 남한 인구와 비슷하고, 국토면적은 1,220천 m^2 로 한반도의 약 5.6배에 달한다.

인구 구성비율은 흑인이 77%, 백인 10%, 아시아인 등 유색인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금과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많아 과거에는 흑백 갈등과 빈부 격차해소 등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했다.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민의 대다수인 흑인에 대한 지위가 향상되어 국내정치가 안정되고, 부의 분배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으나, 아직도 빈부의 격차의 해소와 불안정한 치안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2. 남아공의 사료산업

남아공의 사료생산량은 약 850만톤으로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고, 그 중 육계 사료는 약 200만톤, 육용종계 사료는 3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사용되는 사료원료는 옥수수, 대두박,

우지, 해바라기씨박 등을 들 수 있고, 남아공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소맥도 주요 원료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장 가격에 따라 식용 우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료 원료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세계곡물시세(CBOT), 수요와 공급의 균형, 환율, 은행이자율, 물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남아공의 사료 원료는 국산과 도입 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옥수수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대두박은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 중 옥수수는 국내에서 연간 약 700만톤 정도 생산되어 식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옥수수의 ha당 단위 생산량을 살펴보면 약 3~4톤으로 미국의 6~7톤에 비하면 매우 생산성이 낮은데, 남아공 내에서도 남부, 중부, 북부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는 강우량이 적고,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관개시설은 옥수수 농사보다는 우선적으로 포도밭 물주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남아공에는 커다란 강이나 댐 등이 거의 없다.

〈그림 2〉,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부 지역 대부분의 토지에는 소맥과 포도주용 포도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식물성 원료인 대두박은 약 90% 정도를 브라질 등 남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에너지 원료인 우지와 펠렛 품질 향상을 위해 해바라기씨 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배합사료의 품질과 사육 생산성은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우수한 사료산업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월 2만톤에서 2만 8천톤 정도이고, 연간 28만톤에서 32만톤 정도 생산된다. 종계 평균 사육수수는 450만수 내외로 사육되고 있다.

육용종계의 사육 성적을 살펴보면 20주령까지 육성기간중 폐사율은 3.5%이고, 65주령까지 산란하는 기간중 폐사율은 12.2%이며, 종계 1수당 종란지수는 151.1개, 병아리 배부수는 126.2수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육계 사료 생산량은 월 15만톤에서 18만톤 생산되어 연간 약 200만톤 정도 생산되고 있다.

육계 병아리 주간 생산수수는 13,500천수~14,300천수 생산되어 2005년의 연간 도계수수는 7.2억수이다.

3. 육계계열화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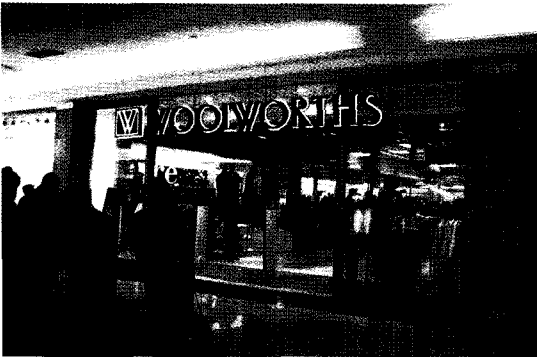
이 나라의 육계 계열화 산업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 현재 계열화 실적은 약 95% 이상이고 나머지 5%는 특수목적이나 가든 등 식당용이나,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산간오지 일부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계열화 산업이 100%라고 해도 무방하다.

주요 계열화 업체는 1위인 레인보우社와 2위인 얼리버드社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한다.

이는 남아공 육계산업이 계열화 산업으로 완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사육농가는 육계사육만을 책임지고, 계열업체가 생산, 가공, 유통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산업으로 남아공

〈표 1〉 주요 계열업체 주간 도계량 및 점유율

구분	업체명	주간 도계량	비율	비고
1	Rainbow	420만수	32%	※ 상위 5개사가 89% 차지 ※ 국산 : 수입 = 75:25
2	Early Bird	360만수	28%	
3	County fair	130만수	10%	
4	County bird	130만수	10%	
5	Sovereign	120만수	9%	
6	기타	-	11%	
계	1,200만~1,300만수			
수입	브라질산이 80%, 캐나다산 10%		25%	



〈그림 4〉 울워스 유통매장



〈그림 5〉 냉장 통닭



〈그림 6〉 냉장 드럼스틱



〈그림 7〉 냉동 구이용 닭

에서는 선진 산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 닭고기 자급률은 약 75% 정도이며, 수입 닭고기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육계 생산비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종계와 육계의 사육 성적이 우수하고, 사육 환경 또한 무창 계사와 유창 계사를 이용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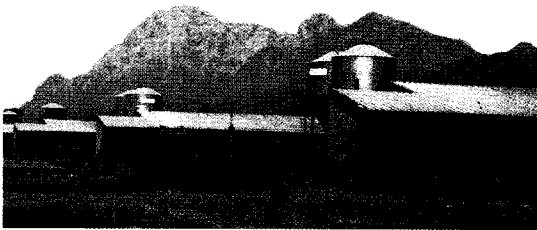
닭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이 85%로 절대적으로 많고, 캐나다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냉동육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닭고기 소비형태는 통닭, 부분육, 절단육 시장이 골고루 나뉘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유기농 축산물이 생산되어 울워스(woolworths)라는 유통채널을 통해서 별도로 고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부위를 절단해서 유통되는 구이용 제품이 인기가 높다.

육계 출하 체중은 1.85kg 내외에서 출하되고 있고, 사육일령은 34~38일, 연간 회전수는 6~7회전이며, 전체적인 사육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육계 농장 사육규모는 약 4만~50만수로 농장별·지역별 다양한 규모로 사육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계 계열화 산업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 현재 계열화 실적은 약 95% 이상이고 나머지 5%는 특수목적이나 가든 등 식당용이나,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산간오지 일부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계열화 산업이 100%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림 8〉 육계 사육용 무창계사



〈그림 9〉종계 산란용 유창계사

계열업체 직영농장과 계약농가 계약농장이 4 : 6 정도로 혼합되어 사육하고 있다.

농가와 업체간의 계약은 상대평가 계약을 시행하여 농가의 사육성적 향상을 통한 사육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농장주가 주로 백인이고, 사육관리자는 흑인이 차지하는데 고급인력인 농장장은 귀하며, 현장 노동자는 품삯이 싸고 풍부한 편이어서 농장 사육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농장장, 즉, 유능한 관리자 확보가 주

요 관건이 되기도 한다.

농장형태는 무창 계사와 유창 계사가 있는데, 무창 계사는 주로 육계사와 종계 육성사로 이용되고, 유창계사는 육용 종계 산란계사로 이용되고 있다.

- '4. 남아공의 육계산업 실적과 전망' 부터는 다음호에 계속...